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미래를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

SF (과학소설)의 태동은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염원을 문학적·형상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서구 평론가들이 SF의 시조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꼽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작품은 5백여년 전인 1516년에 발표되었지만, 종교적 관용이나 남녀평등, 평화주의 등 인류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이념들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17세기에 베이컨이 발표한 「뉴아틀란티스(1627)」나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1637)」 등도 모두 작가 나름대로 이상향을 그린 것이다.

남녀평등·평화주의 등 다뤄

이처럼 미래 사회를 인류의 낙원이나 이상향으로 전망한 '유토피아(utopia)' 소설들이 있는 반면에, 20세기 들어서는 반대로 '디스토피아(dystopia)' 소설들도 많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디스토피아 소설들은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탄생한 인류 미래의 비관적 전망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핵무기의 등장이나 의미심장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인류 역사는 스스로 자멸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빈부격차 심화 등도 암울한 미래 사회의 전망을 낳는 요인들이다.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유토피아 소

설로는 1888년에 미국의 기자출신 작가 에드워드 벨러미가 쓴 「회고: 2000년에서 1887년까지」를 들 수 있다. 19세기 말,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 보니 서기 2000년의 미래 사회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21세기 초의 미국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사회주의 이상사회로 탈바꿈했다는 설정을 채택하면서 모든 사회조직과 각종 산업의 통계 수치까지 정밀하게 묘사하여 발표 당시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책이 나오자마자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에 이 작품의 이념을 추종하는 조직이 1백군데가 넘게 생겨났다고 한다.

「회고」는 20세기 중반까지도 미국인의 필독 교양서 중 한권으로 꼽히며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지만, 오늘날엔 잊혀진 고전이 되고 말았다.

1907년에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시각이 혼합된 소설인 잭 런던의 「강철군화」가 발표되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인류 형제애시대'라는 먼 미래의 유토피아적 사회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몇백년 된 고문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노동계급이 극심한 박해를 받던 20세기 초에 어느 노동운동가가 비밀리에 남긴 기록이었다. 이 소설은 고문서의 내용을 그대

로 인용,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군데군데 인류 형제애시대의 미래 유토피아 사회가 어떤 인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삽입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강철군화」는 뒤늦게 1980년대에 국내에도 번역되면서 청년독자층에서 '소설 자본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바 있다.

프랭크 카프라감독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잃어버린 지평선」은 제임스 힐튼이 1933년에 발표한 소설. 바로 히말라야의 깊은 산 속에 숨어있는 낙원 '샹그리라'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외부와 단절된 티베트의 비경에 불로장생과 목가적 낙원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내용이며, 오늘날 '샹그리라'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유명사로 널리 알려졌다.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유토피아 소설로는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에코토피아」를 들 수 있다. 1975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그 대안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목가적 공동체사회를 묘사했다. 자연친화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예고한 작품으로 기억될 만 하다.

한편 유토피아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두운 전망의 디스토피아 소설들도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조지 오웰의 「1984」

유토피아 소설은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염원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 반면에
 디스토피아 소설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핵무기 등장을 계기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자원고갈·빈부격차 등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작가들에 의해 탄생했다.

일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뒤에 발표된 이 작품은 극도로 경직된 가상의 전체주의 사회를 묘사하여 오늘날 고전의 반열에 오른 걸작이다.

작품 속에서 1984년의 사회는 '빅 브라더'라는 수령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민중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끊임없이 외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주인공은 전쟁 자체가 독재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 숨막힐듯한 사회에서는 특히 '뉴스피크(Newspak)'라는 새로운 언어 체계를 사용하는데, 이는 기존의 영어 어휘를 의미를 단순화시키거나 폐기해 버려 대중 통제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좋은(good)'의 반대말을 '나쁜(bad)'이 아니라 '안좋은(ungood)'으로 바꾸는 식으로 부정적인 어휘들을 없애고 언어를 단순화한다는 설정이다.

「1984」가 정치적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었다면, 그보다 앞서 1932년에 발표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과학기술의 장미빛 미래상을 통렬하게 꼬집은 소설이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표면적으로는 과학기술적 유토피아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세상이 진정 살만한 곳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공장에서 태어나 양육되는 아이들, 폐락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소마'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사람들 등등.

과학기술 발달로 낙관적으로

오늘날 「멋진 신세계」는 지나친 반과학주의라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일어난 과학만능사상에 적잖은 경고를 던진 사실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1984」, 「멋진 신세계」와 함께 디스토피아문학의 3대 고전으로 꼽히는 또 하나의 작품은 소련의 예브게니 자마친이 쓴 「우리들」이다. 이 소설은 셋 중에서 가장 먼저인 1924년에 쓰여졌지만 당시 소련의 출판금지조치 때문에 오랫동안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질서와 조화, 행복의 이름 아래 극도로 통제되는 가상의 연방국가가 등장하며, 마지막 부분에선 연방의 이념을 외계에까지 전파하기 위해 우주 로켓이 발사된다. 오웰의 「1984」는 바로 이 작품에서 상당 부분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오염, 자원고갈, 인구폭발, 생태계파괴 등의 주제를 다룬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작가 해리 해리슨이 1966년에 발표한 「좁다, 좁아!」에서는 인구폭발 문

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식량 위기를 해결할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새로운 대체식량을 등장시킨다.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된 이 작품의 결말은 충격적이다. 새로운 식량 자원이 다름 아닌 사망한 인간들의 시신들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폭발이나 자원고갈과 관련된 어두운 전망들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낙관적인 쪽으로 수정되어 가고 있고, 대신에 유전공학이나 복제인간 등 새로운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불길한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문학은 사실 구체적인 미래 전망을 형상화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을 풍자, 비판하는 의도도 크다. 토마스 모어가 자신의 소설 제목을 라틴어로 '아무 곳에도 없음', '아무 곳도 아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로 지은 이유도 바로 그런 풍자의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오웰의 「1984」 역시 당시의 전체주의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소설들은 끊임없이 인류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보려는 작가들의 조타수적인 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㉞

朴相俊 <SF과학해설가>